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 예수 이름 높이여(찬37/새37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이선갑 장로 2부/홍락기 장로 3부/한태성 장로 4부/이영진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십자가의 은혜(작곡 Mary McDonald)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6:1-4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3:7-19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17) 시청률에 속지마라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8) 그가 있어 교회다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찬204/새288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좋은 교회는 멀어도 간다

Will Travel Far for a Good Church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수년 전 La Canada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많은 성도가 “왜 그렇게 먼 데서 여기까지 오냐?”고 물어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아 혼란스러웠으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좋은 대학은 멀어도 갑니다. 좋은 교회 역시 멀어도 갑니다.” 이분은 제 말에 격려를 받아 등록을 하고, 결국은 교회가 좋아서 교회 근처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택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운전해서 직장에 가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사무실로 나올 것을 요구한다면 월급을 더 주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점점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입니다. 집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회사로 나가려면 제일 먼저 개스비가 지출됩니다. 요즘같이 개스비가 천정부지로 솟는 때는 가능한 집에 있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겠지요.

최근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회사로 출근하는데 쓰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즉 재택 근무자들이 늘었고, 회사로 직접 나가기 위해서 운전을 멀리까지 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의 운전 시간은 평균 25분이며, 이보다 더 걸리면 회사를 옮기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 교회 출석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출석 교인수가 팬데믹 이전의 60-7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를 가서 떠난 성도들도 있었지만 온라인 예배가 발전하면서 굳이 복잡하게 예배 현장에 가는 것보다 팬데믹으로 익숙해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경향이, 지금의 낮아진 현장 예배 출석률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에는 교회 가는 평균 운전 시간이 6-15분이었는데, 지금은 5명 중 1명은 교회까지의 운전 시간이 5분 미만이며, 교회까지 30분 이상 운전할 의향이 있다는 성도는 10%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뀌고 있는 예배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로 회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현장감은 아무리 최첨단 영상기술로도 대체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TV 전도자들이 안수 기도한다면서, TV 화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분위기를 마십니다. 좋은 음악을 좋은 스피커로 집에서 들을 수 있음에도 음악회의 분위기를 즐기며 현장에 가듯이, 또한 인스타그램으로 명화를 볼 수 있어도, 미술 전시회에 가서 그 분위기를 감상하듯이, 예배에는 현장에서만 느끼고, 현장에서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도 온라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현장 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Many years ago, we had someone register as a new church member from La Canada. Many church members asked, “Why do you come from so far away?” This question made him feel like he was doing something wrong. He came to me in confusion, and asked for personal advice whether he was doing the right thing. I gave him my answer. “We go far away for a good college. Even a church, we will travel far for a good church.” This person was very encouraged. He registered as a member. Eventually, he moved closer to church.

Our daily lives are changing since the Coronavirus pandemic. With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orking at home, people driving to work have decreased. With added burden of potentially having to pay more for people to come into the office, many companies allowed people to work at home without expectation of having them come to the office. Working at home is usually adequate. Having to go to office means spending money on gas. Times like now when gas prices are soaring, staying home as much as possible is a way to save money.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commuting time to work has considerably decreased. More people are working out of their homes. They prefer a shorter commute. If average commute took about 25 minutes, there is a clear trend of changing jobs when the commutes are longer. This phenomenon is no different for churches. Attendance for many churches is about 60-70% of what they used to be before the pandemic. Of course, some people have moved. However, argument on the attendance is that, with development of online worship, many people prefer to worship online, which they have become comfortable with during the pandemic. Similar from the survey, average driving time to go to church was about 6-15 minutes before the pandemic, but now 1 out of 5 people drive less than 5 minutes to church. Less than 10% of people are willing to drive 30 minutes or more to go to church.

We have to rethink changing culture of our worship. I don't think being able to work at home can be compared to worshiping online at home. The feeling of worshiping in person cannot be duplicated online, no matter how technically advanced we are. Occasionally, I see TV evangelists praying over people online, but you cannot experience the prayer in person. A cup of coffee tastes better in a nice ambiance. Even if we could listen to good music at home with nice speakers, we still go to concert to enjoy the ambiance. We see a masterpiece on Instagram, but we still go to exhibitions to enjoy the ambiance of the art exhibit. There is the feeling of grace that we can only share in the place of worship. If we couldn't go to heaven via online, then we must commit to be at the place of worship.



주일설교시리즈
산상 설교 강해- 제17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시청률에 속지마라

(마 6:1-4)

1.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잘했다' 칭찬 했던 일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일을 나누어 봅시다.

2.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밝히고 있나요? 착한 일일수록 동기를 더 살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3.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착한 일을 더 열심히 해야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할 몇가지 원칙을 정리해 봅시다.
 - 1) _____ (1절, 마 5:16)

 - 2) "나팔을 불지 마라"(2절) 나팔을 부는 정당한 이유 뒤에 숨어있던 동기는 무엇일까요?

 - 3) _____ (3-4절)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4) _____ (1, 2, 4절, 참고/갈 6:6-10, 히 11:24-25, 히 12:2)

4.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까요?

적용하기



교육부 - K-5학년 VBS

형, 누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졸졸 졸

VBS는 학생들뿐 아니라 함께 봉사하고 섬기신 리더들과 모든 선생님, 그리고 봉사자들에게도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섬겼던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경험하며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 갔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포래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VBS는 정말 축복이 가득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VBS의 예배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의 시간을 VBS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Ben Lee(BYM 9학년)

2022년 여름의 VBS는 정말 최고의 여름 성경 학교였습니다. 찬양팀과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던 시간은 정말 은혜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의 만드는 시간, 게임 시간, 물놀이, 자연과학 실험시간, 그리고 음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교회 뜰에서의 페스티발은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처럼 멋지게 여름을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중에서 최고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각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최고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몇 년 만에 다시 열게 된 2022년 VBS는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Lina Hong(4학년)

이번 VBS는 제가 교회 사역에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정도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섬긴 VBS 리더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다 배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오랜만에 한 VBS에서 리더로 섬기면서 제가 어렸을 때 직접 VBS에 참석했었던 기억으로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대해주셨는지 생각났습니다. 그분들이 제 롤모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그 시간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처음 학생들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Olivia Han(6학년)

"엄마, 이번 VBS도 온라인이지?" 지난 2년 동안 이번에도 코로나로 당연히 교회에 못 갈 거라는 질문에 "아니야, 이번에는 교회에서 해!"라고 대답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제 마음도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몇 주 전부터 주제곡을 들으며, 오랜만에 교회에서 하는 VBS를 기대했습니다. 손꼽아 기다렸던 VBS 당일부터 매일 몇시에 가냐고 물어가며 준비하던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분주했고, 돌아오는 길엔 서로 무엇을 했는지 나누며 찬양과 율동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반 선생님들과 TA 선생님들의 반겨주심에 아이들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고, 꾸집했던 카니발이 있었던 날엔 예배 전까지 구석구석 누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간 일주일일 아쉬워하며 아이들은 내년에도 오라고 하였습니다. VBS를 통해 잃어버린 시간의 소중함이 채워졌으리라 생각하며, 아직은 어

리고 작은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소중함을 알고 또 감사가 채워지는 아이들 되길 소망합니다.

정지영 집사(학부모)

미국에 온 지 일 년이 되어가던 즈음, VBS 준비로 분주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TA를 하면서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VBS를 하며 놀란 것은 중, 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장 말 안 듣는 나이인데... 어쩌면 VBS 내내 모습은 참 교사였습니다. 4일 내내 초등생 아이들을 인솔하며 함께 활동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풍경을 보며 절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미 주어진 사명이 있었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보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딸 미주와 주희야~ 함께 하면서 너무 멋지게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에서 함께 TA로 활동한 현우, 예준, 예성, 사랑이, 장균이도) 베델교회가 VBS 내내 이렇게 해 온 것이 참 놀랍고 배울 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발걸음을 내딛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수정 집사(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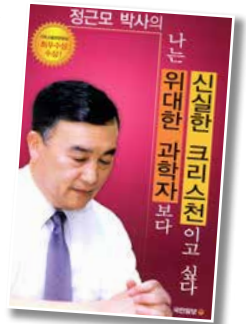


WE ARE THE CHAMPIONS

강영우 박사는 자신의 시각장애를 변명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고백합니다. 신체적 장애가 아니어도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모두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장애나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변명으로 삼습니다. 내가 완벽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듯,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듯,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보며 "이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 옆드려 기도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내 아들이야말로 정말로 효자입니다."라는 한국 과학기술원 (KAIST) 설립의 산파 역할을 해낸 정근모 박사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낫아채 갈 그 어떤 상황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어느 유명하지 않은 주교의 묘비 (2021년 7월 11일 '이 마음을 품으라' 설교)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좀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게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했을 지!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였기에 그들은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당신이 이 큰 대륙에 영향을 끼칠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은 기대합니다."
-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ison)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예수님과 한 마음, 한 생각을 품는 일은 어렵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으로 우리는 이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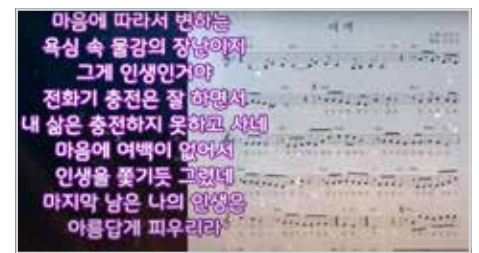
아들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 -강영우
(2021년 1월 3일 '자격 미달을 뛰어넘는 믿음' 설교)
한국인이자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시 행정부의 차관보로 일했던 강영우 박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정근모

(2021년 6월 20일 '떠밀린 기쁨' 설교)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바울은 "I am put here"라며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떠밀어 놓으셨다고 그의 상황을 해석해

여백

(2021년 10월 10일 '변두리에서 여백으로' 설교)



김종환 작사/작곡의 '여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타향에 사는 이민자들의 삶은 마치 변두리 인생인 것 같아서 이 '여백'이라는 단어가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도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이중적 변두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오는 혼돈과 도전과 갈등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간 후에야 유효할 시민권이 아닌, 이미 유효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고 천국 시민답게 힘차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베밀뉴스팀

새가족 소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미국에 온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미국 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에, 감동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우리 가족의 배후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좋은 길 한 가운데에 바로 베델교회가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할 때, 베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가족은 위로를 얻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 주일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베델교회에 정착하고자 결심한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먼저,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영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니, 매주 은혜가 넘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아이들도 예배를 즐거워하며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이들이 기뻐하고 기대한다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게 합니다.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흥미를 느끼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매주 준비하여 주시고, 많은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심에 부모로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섬김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주차할 때부터 예배 후 카페에서 점심을 먹을 때까지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는 베델교회로 인도하심은 분명 저희 가정을 향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처럼 내 삶의 배후에서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더운 여름날 얼음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게임 체인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장의선 성도

선교 - 필라델피아(예살)

선택 할 수 없던 "Bang Bang"



아름다운 음악 소리, 본받고 싶은 어른들의 격려보다는, 집 안에서 서로 큰 소리로 퍼붓는 욕설들, 마약과 연루된 다툼 속에 총구를 겨누다가 울려 퍼지는 소리... "Bang!"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위험한 우범 지역인 '노스 센트럴' 아이들에게는 익숙한 소리입니다. 거리 청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의 사각지대인 이곳 주민 중 44%가 정부가 지정한 극빈자로 살아갑니다. 학교시설은 낙후되었고, 세 들어 사는 집은 주인의 방관으로 벽마다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회색빛으로만 가득한 아이들의 삶의 터전에, 한 손에는 빗자루를 또 한 손에는 꽃이 심긴 화분

을 들고 찾아와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신 이태후 선교사님의 섬김으로, 그 거리가 이제는 제법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밝은 빛깔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배고프고 지



루하기만 했던 여름방학이 2006년부터 시작된 서머 캠프로,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곳에 거(居)하심으로 아이들에게 전하신 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볼 수 없는 장대비가 쏟아지던 3년 전 어느 무더운 여름, 예살 청년들이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을 향한 눈물과 땀도, 함께 주고받은 하나님 사랑도,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에는 Fundraising을 통해 브라이언과 아이샤의 대학 학비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야 했던 예살의 청년들이, 7월 23

일부터 30일까지, 11명이 한 팀을 이루어 다시 한번 미대륙의 반대편을 향합니다. 팀원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각자의 은사에 맞게 아이들과 함께 할 성경 공부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함께 할 활동과 크래프트를 준비하는 모든 순간, 또 아이들과 눈을 맞추어 함께 웃고 뛰노는 모든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살 단기 선교팀

■ 선교 기간: 7월 23일(토)-7월 30일(토)

■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기도해 주세요

1. 오고 가는 길, 그리고 사역 기간 중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2. Uber Street의 아이들에게 여름 캠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과 소망이 더욱 깊이 심기도록, 크로스웨이 교회팀과의 연합 사역, 아이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주세요.
3. 이태후 선교사님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람/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목사/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욱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7월 수요일예배 “이제부터, 다시, 기도”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후, 모든 교회는 영적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모일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을 맞아 어찌할 바 모르던 중에, 베델교회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카타콤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Zoom으로 한시, 한때 모여 영적 암흑기를 건너는 대장정을 2년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이 좀 진정되었다 싶지만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며, 이 시대 그리스도의 소명이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가중되고,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영적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시점에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자의 본분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언젠가가 아닌 지금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7월 첫 주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 보면서,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Just Do it! 그냥 하면 되는 것이며,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베델 수요일예배에 오셔서, '이제부터, 다시, 기도'라는 주제로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경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예 목마른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이충경 목사

▶ 일시/장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본당), 오후 7시(온라인)

▶ 주제: 7월 6일(첫째 주) - Just Do it

7월 13일(둘째 주) - 기도는 영당으로

7월 20일(셋째 주) - 조조 확인, 야심 찬 기도

7월 27일(넷째 주) - 기도는 기적을 당하는 것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7월)	7/3:	①부-현석남	②부-한 존	③부-홍승평	④부-이정수
	7/10:	①부-홍원희	②부-변준호	③부-황세현	④부-전형우
	7/17:	①부-김광영	②부-김진성	③부-홍대원	④부-정수정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7월)	7/2: 박선재	7/9: 박성남	7/16: 박영선	7/23: 박재홍
------------------	----------	----------	-----------	-----------

강단꽃(6,7월)	6/26: 김한요, 박경철, 서예원	7/3: 김보라	7/10: 김보라, 김성희	7/17: 기정효, 김창남
-----------	---------------------	----------	----------------	----------------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간호사-채수정

다음주 | 의사-탁정호(소아과), 간호사-김명숙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익식(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령(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베델 수요일예배 안내

찬양과 말씀, 그리고 깊은 나눔이 있는 수요일예배에 초대합니다. 주중 공예배인 수요일예배에 많이 참여 하셔서 은혜받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7면 참고)

일시/장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문의: 박재영 집사 (714)980-1653

◆ 셀모임안내

셀모임은 이번주 6월 말까지 진행하고 방학하게 됩니다. 셀모임은 셀의 상황에 따라 계속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방학을 하시더라도 주일 주신 말씀을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 제6차 한 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제6차 한 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가 "교회를 지키는 신학- 도전하는 Critical Theory"란 주제로 열립니다. 저명한 신학교 교수님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론들에 대해 시원하게 답을 해줄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큰 은혜와 배움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좌는 현장에서만 진행되며 라이브 송출은 없습니다.)

일시: 7월15일(금) 저녁 7:30-9:30 (2강좌)

7월16일(토) 오전 6:00-11:20 (4강좌)

오전 11:30-12:30 (Q&A)

강사: 조영천 목사(현. 아틀란타 새교회 담임, Westminster 신학교 PA, 신학교 겸임교수)

주중훈 교수(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정승원 교수(현. 총신대학교 부총장 겸 신학대학원장)

◆ 제9회 유영 장학생 및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2년 베델 장학생 프로그램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기탁받은 유영 장학금 1만 불을 선교사 자녀 중, 특별히 2-3명을 따로 선발해 지급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6월 1일(수)-6월 30일(목)

문의: 황세현 집사 scholarship@bkc.org (949)391-9497

◆ 장학특별헌금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장학 특별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고통과 혼란의 청년기를 겪어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베델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삽진된 지정 봉투를 사용하시거나 헌금 시 '장학 헌금'으로 표 기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황세현 집사 (949)391-9497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Tithely)

◆ 베델 아기학교: Mommy & Me 학교 교사 모집

기존에 진행되었던 주중 프로 그램 아기학교가 새롭게 편성되어 Mommy & Me 학교로 돌아옵니다. 현재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모든 분의 지원 바랍니다.

문의: 이진영 전도사 (949)616-9667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초등부(2,3부) 교사 혹은 TA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소망부 VBS 교사 및 TA 모집

소망부(장애인) Hope Ministry에서 VBS를 위한 교사를 찾습니다. 함께 섬겨주실 선생님과 TA들은 본당 앞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VBS 기간 및 시간: 7월 19일(화)-7월 22일(금) / 오전 9시-오후 2시

문의: 김종현 집사 (949)533-4520

◆ BYM 단기선교 펀드레이징

BYM에서 Watts 도시 선교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코트야드에서 진행합니다. 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팔빙수가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큐티인 판매

7-8월 한국어 큐티인과 교회학교 큐티인 7월호 영문판이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온가족이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중기 청년선교사 파송

오늘 주일 3부 예배 중에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준비하기 위한 중기 청년선교사로 예수의 막미선 자매를 파송합니다.

사역기간: 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사역지: 터키, 그리스, 이집트, 이스라엘 등

◆ 위로해 주세요

故 윤봉현 집사님(김복순 권사의 남편)께서 6월 19일(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Don't be Deceived by Ratings

(Matthew 5:43-48)

1. When you were young, did your parents praised you with "You did well"? Share what you remember.

Apply to Life



2. Even though Pharisees practiced righteousness(good deeds), Jesus revealed their motivations as what? Do you agree that you must search your motivations when doing good deeds?

3. Christians must practice righteousness. Let's organize a few principles that we must be careful with when doing good deeds.

1) _____ (v.1, Matt 5:16)

2) "...do not sound a trumpet..."(v.2) What is the motivation behind announcing with trumpet?

3) _____ (v.3-4)

What does right hand represent?

4) _____ (vv.1, 2, 4, Ref: Gal 6:6-10, Heb 11:24-25, Heb 12:2)

4. In order for us to look only to God, what must happen first when doing good deeds?